

中 에너지기업 CERCG 채권 1.5억달러 부도 후폭풍

“한화·이베스트·현대차證 누구책임?” 꼬리문 소송전 예고

유안타·신영, 현대차 상대 소송 현대차, 한화 직원 경찰에 고소 BNK “한화에 책임몰어야” 주장

〈증권사별 Exposure 현황〉 (단위: 억원)

회사	투자금액	2018.03 자기자본		FY2017당기순이익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대차투자증권	500	7,958	6.3%	589	84.9%
BMK투자증권	200	4,157	4.8%	19	1052.6%
KB증권	200	42,989	0.5%	2,715	7.4%
유안타증권	150	10,948	1.4%	673	22.3%
신영증권	100	10,722	0.9%	692	14.5%

주) 당사 신용등급 보유 증권사 기준

/자료=각 사

대로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이다. KTB자산운용(200억원) 등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면 총 9곳이 매입해 익스포져 규모는 1650억원에 이른다.

이들 증권사 대부분은 지난 2분기 중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 익스포져 일부를 이미 손실 처리한 상태다. 현대차증권이 45%인 225억원을 손실로 반영했고 KB증권은 보유금액 전체를 손실로 인식했다. 유안타증권은 평가손실

의 70%, 신영증권은 50%가량을 각각 반영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수익이 채권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이번 채권 부도가 회사 경영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다”면서도 “법적절차를 통해 이번 채권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ABCP를 둘러싼 국내 증권사 간 소송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부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채권 부도에 따라 법적 절차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이 ABCP를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공식적으로 확실한 예약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첫 변론을 개시한 상태다. 신영증권은 예약매매 100억원을 비롯해 매매약속이 미뤄짐에 따른 이자 손실분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을 담당했던 한화투자증권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경찰이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BNK투자증권 역시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중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KTB자산운용, 골드브릿지자산운용(60억원)은 펀드 자산에 해당 ABCP를 편입해 투자한 만큼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ABCP 발행을 담당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채권단이 단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현 금감원장은 ABCP 사태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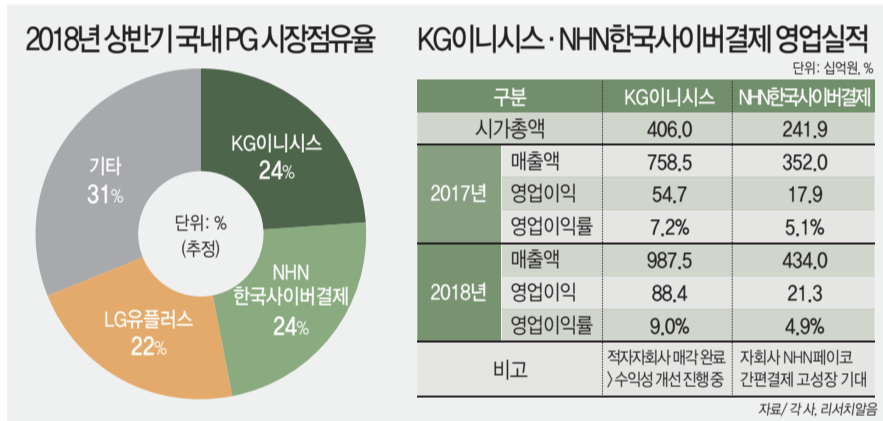
한편 지난 9일 NICE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CERCG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상환되지 않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차가 발행한 ABCP도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정제십이차 당좌거래 정지가 최종 확인되는 시점에 ABCP 신용등급을 D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제에너지공기업(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 5000만달러 규모 채권 부도 후폭풍이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까지 자동 부도 처리되면서 책임소재가 가려졌다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CERCG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이 9일 0시를 기점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를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이날 밤 자동 부도 처리됐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등 5곳으로 투자금은 총 1150억원이다. 보유금액 순서



온라인쇼핑 26% ↑ ... 올 100조 돌파 기대

(연평균)

株라쿨라의 종목
KG이니시스·NHN한국사이버결제
모바일 결제 비중 62% 기록

“지난 주말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도 모바일 간편결제의 활성화 속에 연평균 25%가량 급성장하고 있다”

독립리서처 리서치알ום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1일 국내의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결제대행 사업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광군제’를 기념해 매년 11월 11일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리바바 ‘T몰’의 11일 당일 거래액은 지난 2015년 16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3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광군제의 성장 배경에는 편리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11일 알리바바의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서는 14억 8000만건의 결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광군제 기간의 모바일 결제 거래비중이 2013년 15%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90%까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역시 고성장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

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모바일 결제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6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연구원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 속에 2022년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온라인 거래대금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에 주목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내 1,2위 업체인 ‘KG이니시스’와 ‘NHN한국사이버결제’를 탐닉 종목으로 제시했다.

KG이니시스는 국내 1위의 전자결제 대행사업자로, 17만개 가량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폭넓은 가맹점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PAYCO) 등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KG이니시스에 이은 2위 사업자로, 쿠팡, 티몬, 위메프, 넥슨 등을 포함해 1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두 업체는 실적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 대비 각각 22.6%와 33.3% 하락했다.

최 연구원은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자결제대행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 서비스 출시 역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영지 기자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 내달 착공

LH, 리츠 설립... 국토부 영업인가 사업비 673억 규모, 10년간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최초로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내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리츠를 설립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 리츠는 총 사업비 673억 규모로 LH, 대구시, 민간사업자가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용자해 ‘산단재생1호 서대구 지식산업센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서대구산단 리츠)’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LH는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내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임대·운영하게 된다. LH는 사



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LH

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회사(AMC) 역할도 수행한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앵커시설로 추진되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3만3486㎡로 건설된다. 융·복합 혁신센터 컨셉으로 업무·제조형 공장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이 들어선다. 또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전환되며, 오는 12월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대구산단 리츠는 LH가 중심이 돼 민간자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대구시의 출자, 사전임차 및 매입확약(복합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40%)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협업모델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LH 관계자는 “향후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로 참여 예정인 성남일반산단, 대전1·2산단, 시흥시화곡가산단, 진주상평산단 등 산업단지외 대도시권 공업지역에서 노후된 산업공간을 혁신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 또한 리츠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분양캘린더

이달 말 제도개편 청약시장 ‘숨 고르기’

11월 셋째 주엔 청약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룬 영향이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 유(有)주택자들이 개편 전 분양하는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월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총 4249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공급하는 ‘병점역 아아파크 캐슬’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12곳에서 진행된다. /채신화 기자

코스피 3.37% 상승... 주식형 펀드 수익률 ↑

주간펀드동향

국내 3.87%, 해외 2.43% 올라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상승했다.

1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11월2~11월8일)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지난 주말(11월 2일) 3.53% 급등함에 따라 주간 3.37% 상승한 2092.63에 장을 마감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060억원, 470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9379억원 순매도 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약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04% 상승한 2082.47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

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2.27% 상승한 993.53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3.87%올랐다. 증시상승에 따른 차이 실현으로 인덱스 유형에서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던 반면 액티브유형에서 자금이 늘어나면서 순자산은 전주 대비 8890억원 늘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2.43%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브라질 펀드(-1.18%)만 하락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브릭스(+3.65%), 북미(+3.49%), 중화권(+3.3%)펀드가 동일 기간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678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는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인 ‘NH-Amundi 코스닥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10.78%)로 나타났다. /손영지 기자